

KDB DAEWOO DAILY

2013. 1. 17 (목)

코스피지수 (1/16)	1,977.45P(-6.29P)
코스닥지수 (1/16)	507.68P(-0.34P)
KOSPI200지수 3월물	261.45P(-1.95P)
중국상해종합지수 (1/16)	2,309.50P(-16.18P)
NIKKEI225지수 (1/16)	10,600.44P(-278.64P)
원/달러 환율	1,058.70(+2.20)
국고채 수익률 (3년)	2.74(+0.01)
유가(WTI) (1/16 17:55)	93.58(-0.31)
국내주식형수익증권(1/15)	678,659억원(-2,776억원)
해외주식형수익증권(1/15)	258,482억원(-241억원)
고객예탁금(1/15)	181,773억원(+4,195억원)
신용잔고(1/15)	40,946억원(+249억원)

시황전망

디커플링은 없다

관심지표

미국 살인독감 상황, 미국 경기 회복과 주가에 충격을 줄 것인가?

산업분석

지주회사[비중확대] - 정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

조선[중립] - 성기종: 불황을 이겨내는 놈!

기업분석

대림산업[매수] - 송홍익: 상반기에는 펀더멘탈과センチメント 개선으로 주가 상승 가능

영원무역[매수] - 이혜미: 단기적인 주가 조정 예상되나 fundamental은 견고

이마트[중립] - 김민아: 4Q12 Preview 및 2013년 전망: 규제의 파고를 넘어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디커플링은 없다

한국과 대만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둔화는 일시적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유입세가 가파르다. 올해 들어 2주간 GEM과 Asia ex-Japan 펀드로 1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되었다. 이머징아시아 지역과 관련한 펀드 자금유입과 아시아 주요국에서 외국인 매수세는 거의 동일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대만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더디면서 인도와 일본 등과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일단 한국에서만 외국인 매수세가 더딘 것이 아니라서 점에서 일단 뱅가드 펀드의 추종지수 변경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매수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매수세의 소강상태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대만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둔화는 미국 IT섹터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최근 애플의 주가하락으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IT섹터는 미국 나스닥에 비해 선전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품 경쟁관계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나스닥과 비슷하다. 따라서 최근 미국 IT섹터의 상대적 부진이 국내 부품업체들의 상대적 부진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IT산업의 비중이 큰 한국과 대만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둔화의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번 실적시즌 전체적으로 Top-Line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지만, GE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섹터 주요 종목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경기회복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 역시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최근의 나스닥 부진도 추세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과 대만 IT섹터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다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

그림 1. 애플의 회복과 함께 한국과 대만 증시의 IT 주도력 및 외국인 매수세 회복 예상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유입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는 더더

전체적인 매수기조는 유지되는 가운데 일시적인 소강상태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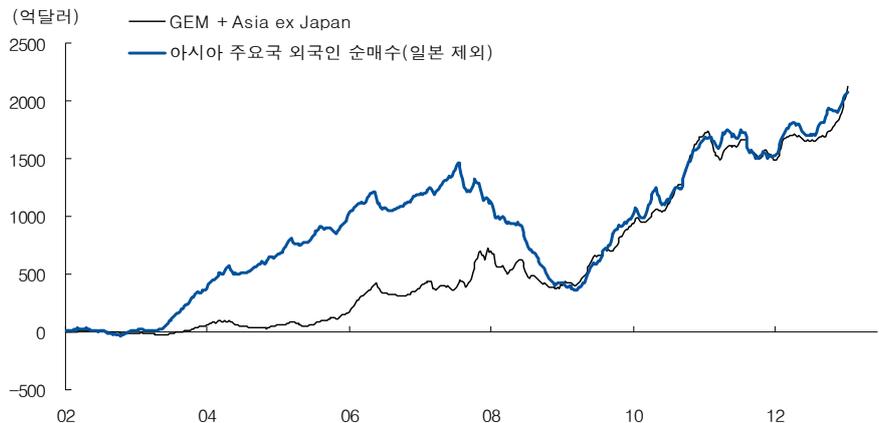
한국과 대만 증시에서의 더딘 외국인 매수세는 일시적 소강상태 정도로 판단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유입세가 가파르다. 2008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연초 유입세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올해 들어 2주간 GEM과 Asia ex-Japan펀드로 1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된 것은 분명 큰 규모이다.

이머징아시아 지역과 관련한 펀드 자금유입과 아시아 주요국에서 외국인 매수세는 거의 동일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별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들어 2억 달러 미만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반면, 인도와 태국, 필리핀 등에서는 19억 달러 이상 순매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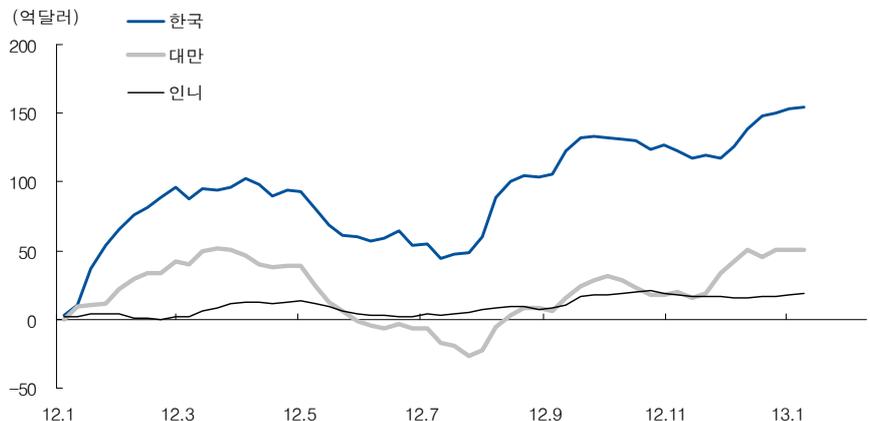
주가 역시 국가별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일본과 인도, 태국, 필리핀 등은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 한국에서만 외국인 매수세가 더딘 것이 아니라서 일단 벵가드 펀드 추종지수 변경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전체적인 매수기조는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매수세의 소강상태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이머징 아시아 지역 관련 펀드 및 외국인순매수



자료: EPFR,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외국인 순매수 - 최근 더딘 양상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일본과 인도, 태국 증시 외국인순매수 - 2012년 연말부터 매수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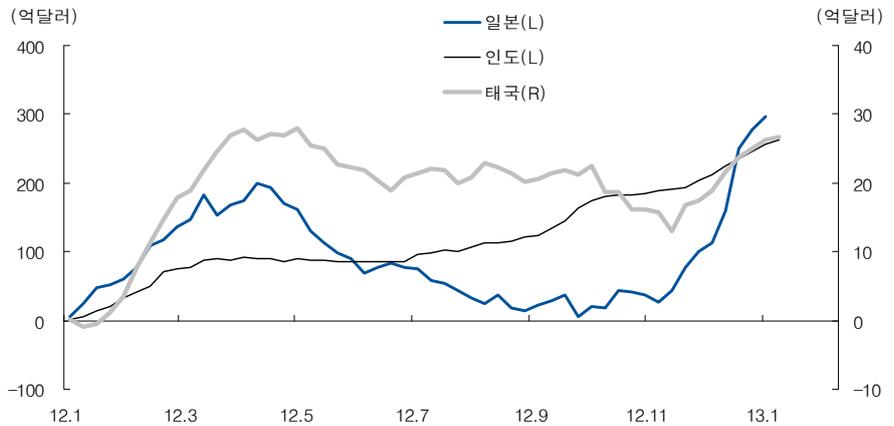


그림 5. 인도 증시는 역사적 고점에 도전, 일본은 저항선 상황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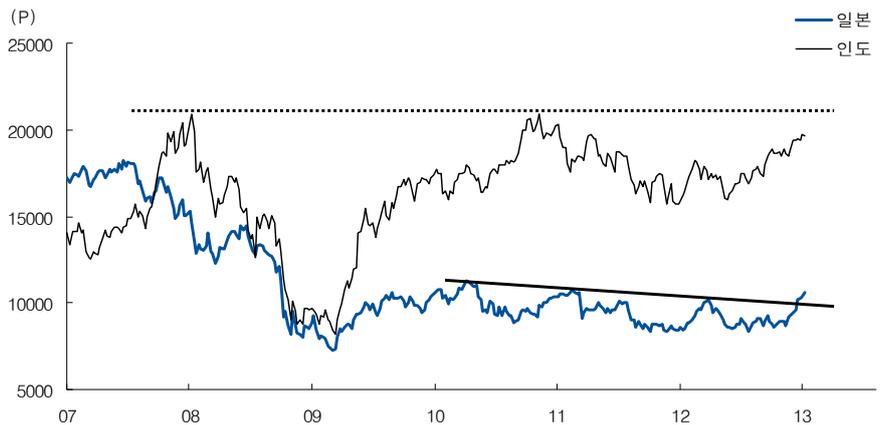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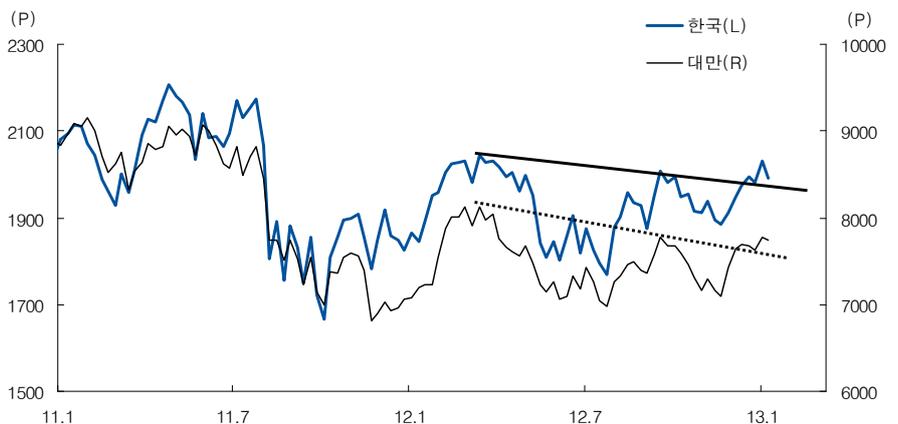


그림 6. 한국과 대만, 가격조정보다는 기간조정 흐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지역별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인도나 일본 등의 주가가 회복세나 강세지속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과 대만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은 두 지역의 주가 추세가 완전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지역별로 순환적인 공백을 나타내는 정도로 판단된다.

미국 증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회복세

미국 증시의 회복세를 감안하면 한국과 대만의 소외는 일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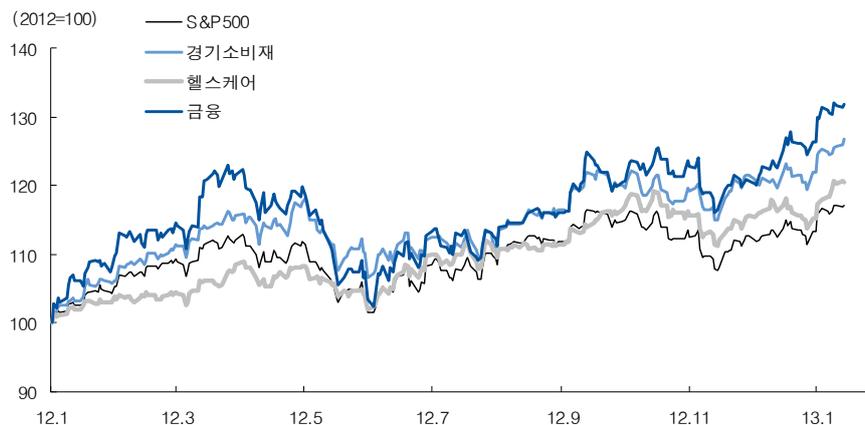
아시아 내 국가별로 외국인 매수세의 차별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한국과 대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증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회복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S&P500지수를 견인하는 섹터는 금융과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등이다. 금융섹터는 부동산시장의 회복, 헬스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모멘텀이 바탕이라고 보여진다. 경기소비재는 지난해 연말 쇼핑시즌에서 보았듯이 미국 소비의 회복이 상승의 주된 근거로 보인다. 다우운송지수와 러셀2000 등 내수와 중소형주의 강세 역시 이러한 회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수 7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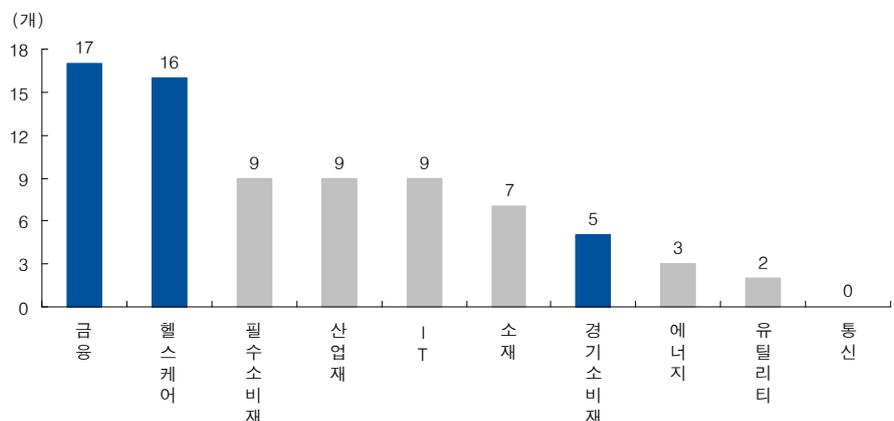
재정절벽 이슈로 인해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그 결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 노이즈 이상의 충격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S&P500지수 내에서 올해 들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수가 77개에 달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7. S&P500 및 섹터별 지수 - 금융, 경기소비재, 헬스케어의 주도로 상승세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S&P500지수 섹터별 2013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수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애플의 부진이 한국과 대만의 상대적 소외를 견인

IT섹터의 매출증가 기대감과 자동차 주가 상승은 한국과 대만 증시 측면에서 우호적

한국과 대만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둔화는 미국 IT섹터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최근 애플의 주가하락으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IT섹터는 미국 나스닥에 비해 선전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품 경쟁관계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나스닥과 비슷하다. 따라서 최근 미국 IT의 상대적 부진이 국내 부품업체들의 상대적 부진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IT산업의 비중이 큰 한국과 대만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둔화의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IT 전반적인 매출 기대감 높아 회복세 재개될 가능성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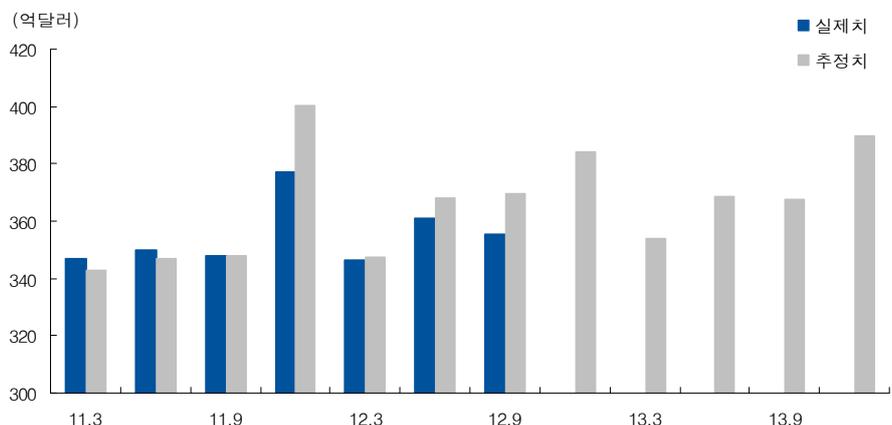
그러나 금번 실적시즌 전체적으로 Top-Line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지만, GE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섹터 주요 종목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경기회복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 역시 회복세가 예상된다. 점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최근의 나스닥 부진도 추세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과 대만 IT섹터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다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

그림 9. 한국과 미국 IT -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애플 부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자료: 증권전산,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매출액 추정치와 실제치 - GE, 18일 실적발표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매출액 추정치와 실제치 - 애플, 23일 실적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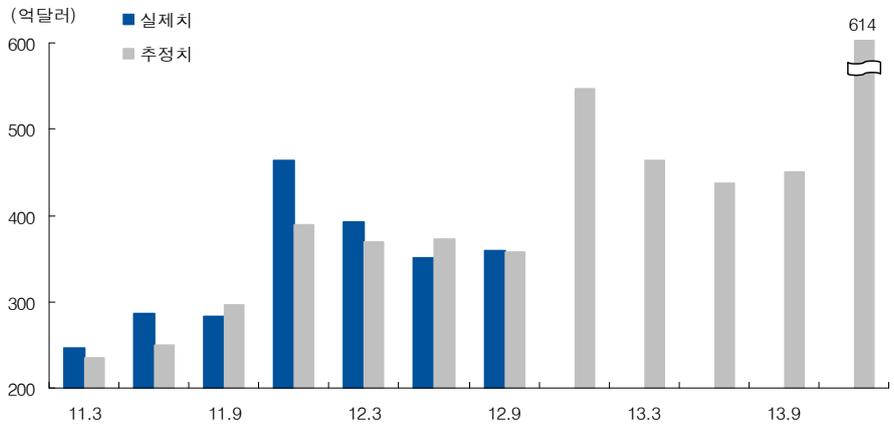


그림 12. 매출액 추정치와 실제치 - 마이크로소프트, 24일 실적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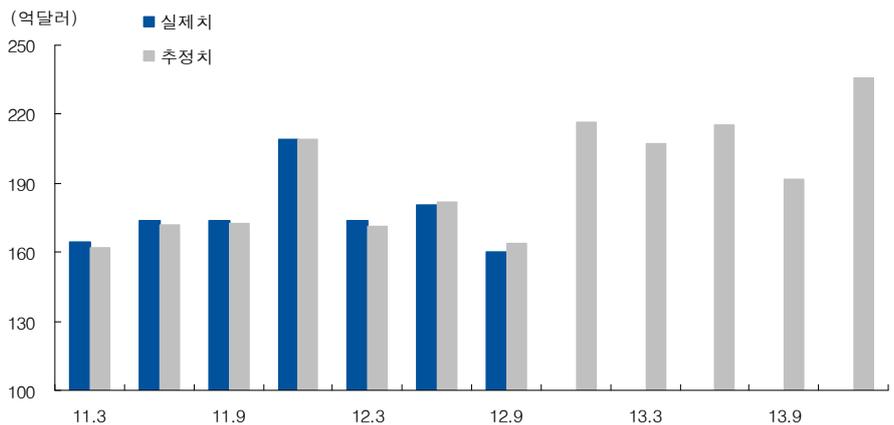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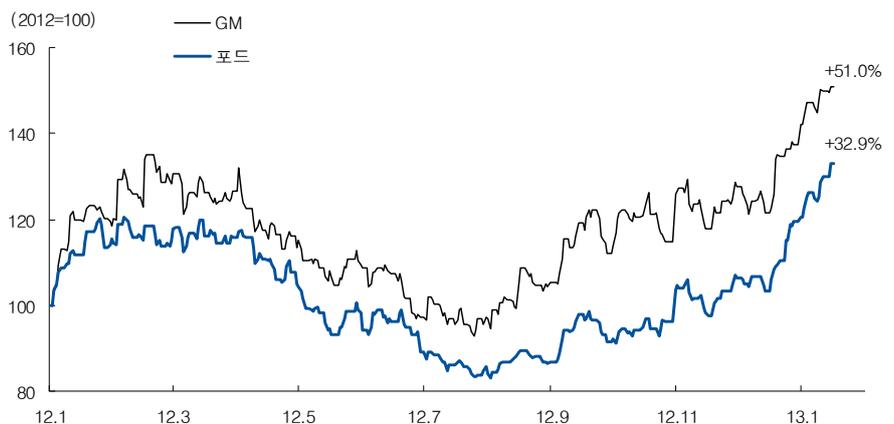


그림 13. GM과 포드 주가 - 강한 회복



주: 자동차 주가 수익률은 2012년 이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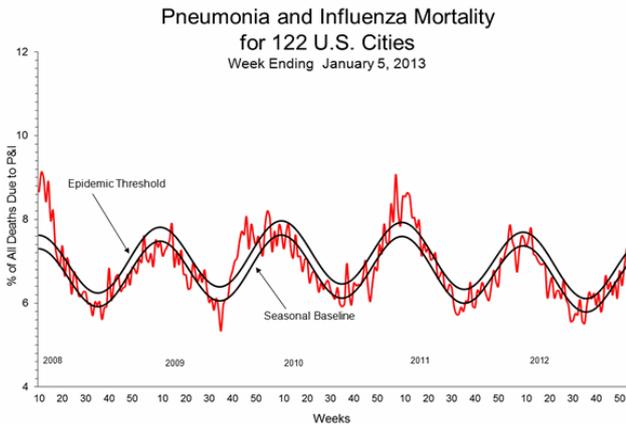
GM과 포드의 신고가 경신 역시 소비회복 관점에서 긍정적

한편, GM(S&P500지수 미편입)과 포드 역시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이어간다는 점 역시 미국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과 대만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둔화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살인독감 상황, 미국 경기 회복과 주기에 충격을 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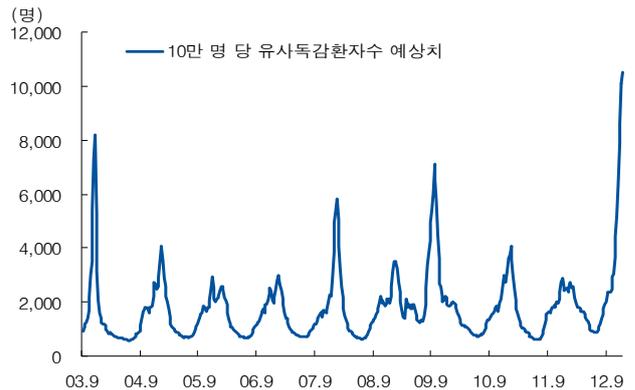
- 미국 살인 독감 상황, “대유행 초기 단계” vs “진정국면+위험과장” 의견 분분. 과거 사례를 볼 때, 경제와 주기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
- 과거 사스와 돼지독감 유행기간, GDP성장률 상승 기조 유지. 유행성 질병에 기인한 경기 위축 정도가 크다고 단언은 어려움
- 주식시장에서는 조정 혹은 횡보하였으나 상승 트렌드 훼손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그림 1. 독감 관련 사망자 베이스라인 상회, 대유행 초기 단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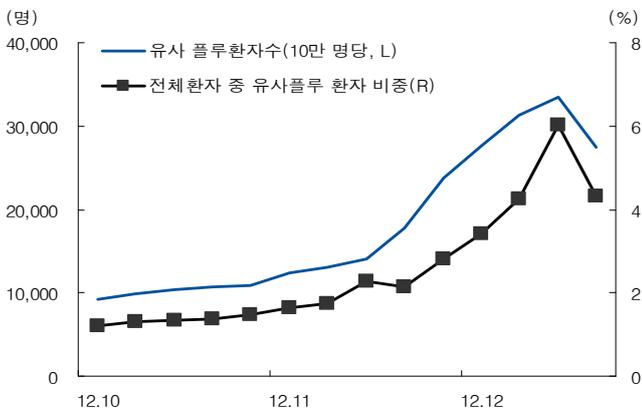
자료: 미 질병관리센터(CD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예측력 높은 구글 트렌드도 독감 유행 예고, 예상치 사상 최고



자료: 구글 독감 트렌드,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반면, 유사독감 환자수 연초 하락 반전...진정국면 전환 시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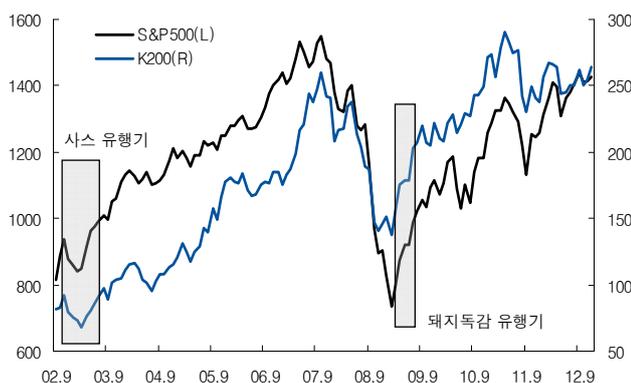
자료: 미 질병관리센터(CD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과거 사스와 돼지독감 유행 당시에도 경제 상승 추세는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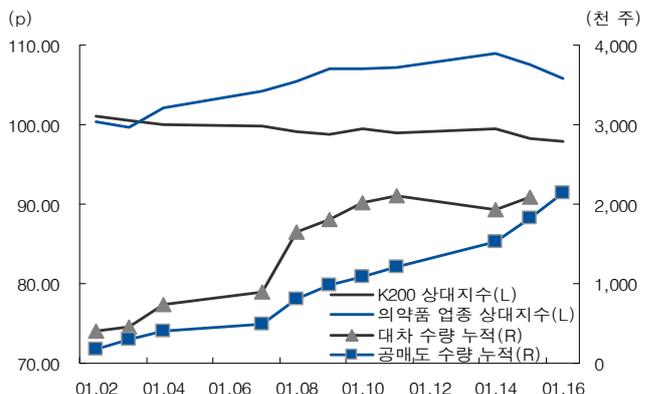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주식시장에서는 일시적 충격은 있었으나 상승세 지속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연초 이후 의약품 업종 상승은 국내 요인, 독감 수혜 아닌 듯



자료: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비중확대)

일감몰아주기 규제,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제시

2013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전일(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춘 실현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특혜성 거래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공정위의 이러한 업무보고 내용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대선 공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는 대기업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역시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감몰아주기 해당 그룹 및 기업에 따라 일정부분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배주주 또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규제 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는 이익 대비 비용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리스크에 놓일 수 있다.

표 1.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구분	내용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23조 개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기준 완화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금지, 부당이득 환수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단기후려치기와 불법 리베이트 등) 손해액의 3~10배 수준으로 배상액 규모 확대
기타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타 정부기관 고발 요청 시 적극적으로 고발권 행사 하도급, 유통 및 가맹분야의 불공정특약 및 관행 시정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현행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 현저한 물량 요건 및 유리한
가격 요건 필요

먼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들 간 대규모 거래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격이 정상 수준으로 형성된다면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이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부당지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유리한 가격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 2.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구분	공정거래법 제23조 7항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현저히 유리한 조건	1)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P) 2)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Q)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세법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규제 마련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규율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는 법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획득한 부에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일감몰아주기가 재벌 2, 3세의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 주기를 증여로 의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를 시행하게 되었다.

상법 회사기회유용 금지 신설

상법에서도 회사기회유용 금지규정의 마련으로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이사 및 승인한 이사가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였으며, 이사 또는 지배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규제 강화, 어떻게 진행될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먼저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현저히’라는 요건은 삭제하고, ‘부당하게’라는 요건은 완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강력히 제재할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부당성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바, 법적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현재까지는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지 않던 상당 수의 내부거래가 일감몰아주기 처벌대상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지원행위로 수혜를 받은 회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없애려는 방안 마련도 예상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영향

**일감몰아주기 수혜 기업:
단기적으로 배당증가 예상,
장기적으로 성장동력 확보 노력**

단기적으로 2013년부터 과세되는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 이를 납부하는 지배주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배당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하에서 기존 계열사 물량에 힘입어 성장하였던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신사업 추진, 해외매출 증대, 인수합병 등 외형확장을 통해 우선 내부거래 매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조선 (중립)

불황을 이겨내는 놈!

2002년과 반복되는 상황, 해양사업이 차별화를 이끈다

현재 글로벌 조선업(상선)은 2002년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박의 절대 발주량 부족 속에 경쟁은 심화되고, 전년비 수주는 증가할 전망이나 선가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주는 상선 수주 증가와 함께 상승하였으나 선가하락(저가수주)에 따른 향후 실적 부진 우려로 다시 하락하였다. 당시 조선사들은 적자상태였다.

하지만 2013년은 당시와 큰 차이점(해양)이 있다. 높은 경쟁력으로 차별화된 소수의 대형 조선사들은 해양플랜트 시장 확대로 해양부문 수주 비중이 증가하면서 절대 수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오일 메이저사들의 해양자원 개발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고 경쟁력이 높은 대형사들은 해양사업에서 상선 부진을 상쇄하고 있다

2013년 조선사들 3가지 변화에 주목하자

- 1)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높은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는 증가할 전망이다.
- 2) 조선사들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 3) 구조조정 가속화로 경쟁사간 차별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전략 및 Valuation

상선 시장은 불황이지만 국내 몇몇 조선사들은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경쟁우위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현재 조선주 평균 PBR이 1.0배 수준으로 지난 수년간 저점으로 여겨졌던 평균 PBR 1.2배 수준까지 상승여력이 있다고 본다. 대형사는 현대중공업(009540/매수/TP 280,000원)과, 삼성중공업(010140/매수/TP 46,200원)을 추천한다. 중소형사 중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현대미포조선(010620/매수/TP 148,000원)을 추천한다. 조선업 불황기에 자금 및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 한진중공업(097230/중립)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 대우 Daily의 산업분석 보고서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문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고지사항을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3가지 변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국내 대형사들 수주 큰 폭 증가 전망

1. 수주증가 →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액은 전년비 큰 폭 증가 전망

2013년에 대형사들의 수주는 전년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경쟁이 심화되지만 대형사들은 대형해양플랜트와 대형 상선부문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전년에 이어 LNG선 발주가 양호하고, 경쟁력 재고를 위해 중대형 선사들의 고효율성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예상된다. 또한 상선부문 수주잔고가 부족해진 대형사들은 기본 수주잔고를 채우기 위한 저가수주라도 감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양플랜트 부문은 2012년에 연기된 대규모 프로젝트와 신규입찰 건수가 각 사별로 크게 증가한 만큼 전년비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 LNG FPSO, FPSO 등 다양한 고가 선종 수주 증가가 전망된다.

수주 증가 및 헤비테일 선박 인도분 증가로 현금흐름 개선

2. 현금흐름, 재무구조 개선 → 헤비테일 선박 인도량 증가로 현금여력 개선

2009년부터 헤비테일 결제비중 증가로 조선사들은 차입금 비중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3년은 후반으로 갈수록 헤비테일 선박 인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조선사들의 차입금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가 수주에 대한 불신감은 있지만 수주 증가와 현금흐름이 개선되면서 현금흐름과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가는 현금흐름에 상호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미포조선도 낮은 선거와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수주는 양호할 전망이다. 따라서 동사는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황기에 차별화 더욱 확대

3. 차별화 확대 → 2차 구조조정 승자로 경쟁자 대거 축소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박금융 축소로 신조선 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살아남은 조선사들도 향후 생존을 위한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이 금융지원 부재로 수주를 받지 못해 2008년 이후 1차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반면 이번 생존경쟁의 승자들은 업황이 회복되면 큰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신조선 발주량이 축소되며 벌크선, 탱크선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2013년에도 신조선 시장의 침체는 지속되지만, 컨테이너, LNG선 중심으로 초대형선 위주의 신조선 시장이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효율성 높은 신선종 개발능력이 우수한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경쟁우위가 예상된다.

대림산업 (000210)

상반기에는 펀더멘탈과センチメント 개선으로 주가 상승 가능

매수 (Maintain)

목표주가(원,12M)	120,000
현재주가(13/01/16,원)	91,800
상승여력(%)	30.7
EPS 성장률(13F,%)	11.9
MKT EPS 성장률(13F,%)	20.1
P/E(13F,x)	7.6
MKT P/E(13F,x)	8.9
KOSPI	1,983.74
시가총액(십억원)	3,038
발행주식수(백만주)	39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316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5
배당수익률(13F,%)	1.1
유동주식비율(%)	76.0
52주 최저가(원)	66,900
52주 최고가(원)	131,500
베타(12M,일간수익률)	1.78
주가변동성(12M daily,%,SD)	2.6
외국인 보유비중(%)	34.5

주요주주
 (주)대림코퍼레이션 외 10인(24%)
 국민연금관리공단(7.55%)
 한국투자신탁운용(주)(5.6%)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6	-4.9	-10.6
상대주가	5.1	-14.3	-16.3

주요사업
 국내 및 해외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건설사업과 석유화학 사업

4Q Preview : 매출액 2.8조원(YoY +20.1%), 영업이익 1,280억원(YoY +168.3%)

2012년 4분기 동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8,311억원(YoY + 20.1%), 영업이익은 1,280억원(YoY + 168.3%, 영업이익률 4.5%)으로 주택 충당금을 추가 반영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된다. 하지만 동사는 다른 대형 건설사 예상 실적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2012년 동사의 신규수주는 8.5조원(국내 5.2조원, 해외 3.3조원)으로 해외수주가 당초 목표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했다. 하지만 동사의 PF지급보증 잔고는 1.0조원, 부채비율 118% 내외로 낮아졌고, 무엇보다도 순현금 상태로 전환되면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중요한 투자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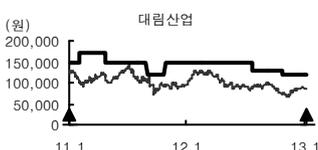
2013년 해외수주 확대를 통해서 Top Line 성장을 강하게 추진할 전망

올해 동사의 신규수주 목표치는 13.0조원(국내 4.2조원, 해외 8.8조원)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동사의 수주 목표치가 공격적인 이유는 ① 재무구조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성장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② 동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던 동남아시아 발전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며, ③ 작년도 해외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수주를 확대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사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들은 ① 사우디 알아지 철강 프로젝트(15억불), ② 사우디 슈카이크 발전 프로젝트(30억불), ③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콤플렉스(20억불), ④ 베트남 Nam Dinh 발전소(15억불), ⑤ 베트남 Long Phu 발전소(12억불) 등이다.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7,438	313	4.2	334	8,645	436	534	8.4	13.6	1.1	10.9
12/11	7,988	516	6.5	366	9,473	492	37	8.5	9.5	0.8	7.6
12/12F	10,078	491	4.9	398	10,300	507	365	8.6	8.5	0.7	6.4
12/13F	11,060	556	5.0	445	11,525	598	140	8.9	7.6	0.7	5.3
12/14F	12,535	691	5.5	520	13,463	712	270	9.5	6.5	0.6	4.1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 자료: 대림산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대림산업: 회사가 LP업무를 수행하는 ELW의 기초자산 발행법인. 대림산업: 회사가 발행한 ELW의 기초자산 발행 법인.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이익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중립(±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펀더멘탈과センチメント 개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할 전망**

상반기에는 펀더멘탈과センチメント가 동반 개선되면서 주가 상승할 전망

동사는 순현금 상태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해외수주 확대를 통한 성장성 확보라는 펀더멘탈 개선 요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새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センチメント 개선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새정부는 경제 부흥리 체도를 부활시키면서 ‘경제 부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경제 부흥을 위해서 먼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세 폐지, DTI/LTV 규제 추가 완화, 취득세 감면조치 1년 연장 등 다양한 부동산 부양정책이 발표될 전망이며, 그에따라 건설 자회사들인 고려개발, 삼호 리스크도 축소될 전망이다. 동시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0,000원을 유지한다.

표 1. 대림산업 4분기 예상 실적

(십억원, %)

	4Q11	3Q12	4Q12(F)		증감률	
			KDB Daewoo	컨센서스	YoY	QoQ
매출액	2,357	2,727	2,831	2,332	20.1	3.8
영업이익	48	141	128	115	168.3	-8.9
영업이익률	2.0	5.2	4.5	4.9	-	-
세전이익	3	176	157	141	4,520.6	-10.6
당기순이익	5	118	118	96	2,460.9	-0.1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대림산업, FnGuid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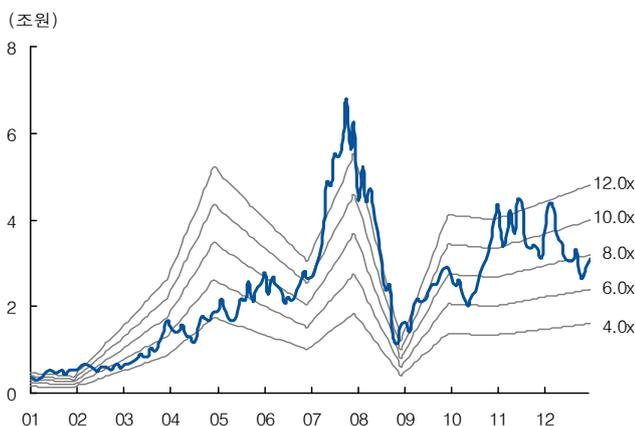
표 2. 대림산업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2012				2013F				2011	2012F	2013F
	1Q	2Q	3Q	4QF	1QF	2QF	3QF	4QF			
매출액	2,051	2,469	2,727	2,831	2,279	2,756	2,819	3,206	7,988	10,078	11,060
영업이익	146	76	141	128	93	148	147	169	516	491	556
세전이익	187	54	176	157	120	153	152	174	520	574	599
당기순이익	127	35	118	118	89	112	112	132	366	398	445
영업이익률(%)	7.1	3.1	5.2	4.5	4.1	5.4	5.2	5.3	6.5	4.9	5.0
순이익률(%)	6.2	1.4	4.3	4.2	3.9	4.1	4.0	4.1	4.6	3.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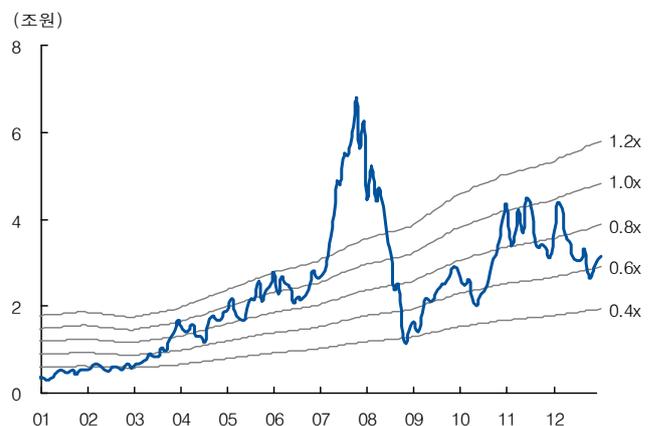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대림산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대림산업 PER 밴드차트 추이



자료: 대림산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대림산업 PBR 밴드차트 추이



자료: 대림산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영원무역 (111770)

단기적인 주가 조정 예상되나 fundamental은 견고

매수 (Maintain)

목표주가(원,12M)	40,000
현재주가(13/01/16,원)	36,050
상승여력(%)	11.0
EPS 성장률(13F,%)	5.1
MKT EPS 성장률(13F,%)	19.2
P/E(13F,x)	10.7
MKT P/E(13F,x)	9.0
KOSPI	1,977.45
시가총액(십억원)	1,471
발행주식수(백만주)	41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118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
배당수익률(13F,%)	0.7
유동주식비율(%)	44.7
52주 최저가(원)	20,850
52주 최고가(원)	38,100
베타(12M,일간수익률)	0.03
주가변동성(12M daily,%,SD)	2.6
외국인 보유비중(%)	29.9

주요주주

영원무역홀딩스 외 13인(55.29%)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외 5인(11.54%)
 Templeton Investment Counsel, LLC 외 8인(6.84%)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0	15.0	44.2
상대주가	6.9	6.2	37.8

성장성 강화 및 고수익성 유지 위한 유상증자 결정

영원무역은 전일 장 종료 후 제 3차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총 350만주(기존 주식 수 대비 8.5%)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GDR(해외 주식예탁증서)을 발행,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조달금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1,000억 원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모자금은 설비 증설 및 신규공장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성장성 강화 및 고수익성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 1) 성장성 측면에서는 방글라데시 기존 의류 공장 자동화 투자에 따른 생산능력 증대가 예상되고, KEPZ 내 신발 및 가방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 제품 다변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 2) 수익성 측면에서는 베트남 원단공장 투자를 통해 수직계열화를 강화, 자체 조달 원재료 비중을 높임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대구 달성공단 내 기능성 원단 R&D센터를 설립해 고부가가치 원단을 직접 생산해 역시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Q12 실적 preview: 전년 높은 기저에 따른 실적 부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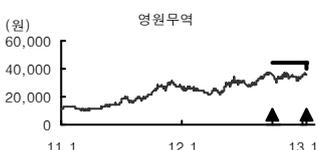
2012년 4분기 매출액은 16.2% yoy 감소, 영업이익 24.4% yoy 감소해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이유는 전년 동기 높은 기저 때문이다. 2011년 중국 인건비 상승에 따른 OEM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주문량이 급증,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4분기 매출액은 23.6% 급증했고, 이익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2012년 4분기 기말환율 급락으로 외환관련손실이 약 50억원 발생해 세전이익은 40.5% yoy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 동기 일시적으로 높았던 법인세율이 정상화되면서 순이익은 10.2% yoy 증가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40,000원으로 하향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희석을 반영하고, 환율 하락으로 2013년 수익예상을 소폭 하향함에 따라 목표주가를 40,000원(기존 44,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807	106	13.2	73	1,782	130	-73	16.9	5.9	0.9	2.9
12/11	990	185	18.7	117	2,869	209	49	23.2	9.7	2.1	5.0
12/12F	1,061	199	18.7	131	3,201	228	51	21.5	10.3	2.0	5.5
12/13F	1,118	202	18.1	137	3,365	240	79	18.8	10.7	1.9	5.4
12/14F	1,272	234	18.4	168	4,112	276	99	19.4	8.8	1.6	4.4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유상증자 금액 확정되지 않아 수익예상에 미반영 / 자료: 영원무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의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중립(±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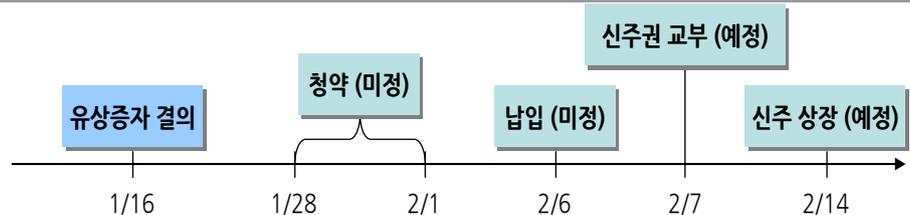
하지만, 전세계 최대 프리미엄 아웃도어 의류 OEM 기업으로써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와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fundamental은 견조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자체적인 경쟁력(대규모 주문 소화 가능, 품질/납기에 대한 track record, 재무 건전성) 및 중국 의류 OEM 산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우호적 환경을 바탕으로 달러 기준 매출액은 2015년까지 연평균 14.4% 성장할 전망이다.

표 1. 공모자금 사용 계획

		(백만원, %)	
지역	구 분	금 액	비 율
방글라데시	의류 생산공장 확충투자	24,604	19.7
	신발 및 가방(핸드백) 생산설비투자	28,426	22.8
베트남	Textile mill (원단 공장) 증설 및 신규 투자	28,426	22.8
한국	대구 달성공단 내 원단 R&D센터 및 제조 설비 투자	38,456	30.8
	경기도 이천 물류 센터 투자	5,038	4.0
합계		124,950	100.0

자료: 영원무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영원무역의 유상증자 스케줄



자료: 영원무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영원무역의 4분기 실적 preview

	4Q11	3Q12	4Q12F		증감률	
			대우 예상치	컨센서스	YoY	QoQ
매출액	266.2	374.2	223.1	267.3	-16.2	-40.4
영업이익	35.6	80.8	26.9	28.4	-24.4	-66.6
영업이익률	13.4	21.6	12.1	10.6	-1.3	-9.5
세전이익	36.6	79.4	21.7	28.8	-40.5	-72.6
순이익	13.9	54.3	15.3	22.1	10.2	-71.8

주: K-IFRS 연결기준, 조정영업이익 (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 기준

자료: 영원무역, Fn Guid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표 3. 영원무역의 환율 민감도 분석 (2013년 기준)

	평균 환율		기말 환율	매출액	매출액 변동률	영업이익	영업이익 변동률	세전이익	순이익	순이익 변동률
	원/달러	원/달러								
100원 상승	1,142	1,135	1,220.4	9.1	227.5	12.5	235.4	161.3	17.5	
50원 상승	1,092	1,085	1,169.4	4.6	214.9	6.2	217.9	149.3	8.7	
10원 상승	1,052	1,045	1,128.6	0.9	204.8	1.2	203.9	139.7	1.7	
기본가정	1,042	1,035	1,118.4	0.0	202.3	0.0	200.4	137.3	0.0	
10원 하락	1,032	1,025	1,108.2	-0.9	199.8	-1.2	196.9	134.9	-1.7	
50원 하락	992	985	1,067.5	-4.6	189.7	-6.2	182.9	125.3	-8.7	
100원 하락	942	935	1,016.5	-9.1	177.1	-12.5	165.4	113.3	-17.5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이마트 (139480)

4Q12 Preview 및 2013년 전망: 규제의 파고를 넘어

중립 (Maintain)

목표주가(12M)	-
현재주가(13/01/16,원)	238,000
상승여력(%)	0.0
EPS 성장률(13F,%)	3.3
MKT EPS 성장률(13F,%)	19.1
P/E(13F,x)	12.2
MKT P/E(13F,x)	9.0
KOSPI	1,977.45
시가총액(십억원)	6,634
발행주식수(백만주)	28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32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
배당수익률(13F,%)	0.3
유동주식비율(%)	72.9
52주 최저가(원)	212,500
52주 최고가(원)	289,000
베타(12M,일간수익률)	0.56
주가변동성(12M daily,%,SD)	1.9
외국인 보유비중(%)	63.9

주요주주

이명희 외 3인(27.14%)

AAMA (12.36%)

FSIM (9.51%)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6	-1.2	-7.4
상대주가	1.5	-10.0	-13.8

주요사업

국내외에서 할인점을 운영하는 유통기업
온라인몰, 슈퍼마켓, 전문점 등 다양한
포맷의 신사업으로 확대 중

4Q12 실적 Preview: 주 2회 휴무로 인한 매출 성장 저조

이마트의 2012년 4분기 실적은, 총매출 2.9조원(-2.9% YoY), 순매출 2.7조원 (-4.7% YoY), 영업이익 1,573억원(+7.6% YoY), 총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5.8% (+0.5%p YoY)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동일점포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7%를 기록했는데, 12월에도 약세를 보여 -5% YoY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 2회 휴업은 12월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되어, 10월 22개, 11월 31개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전 자율적으로 월 2회 수요일 휴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2월 동일점포 성장률은 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률은, 상품구색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가격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개선된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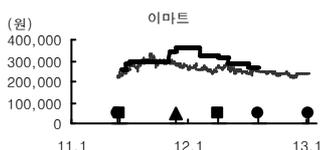
신사업인 온라인 이마트몰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1% 성장한 1,24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계속되는 프로모션 비용 증가로 업손실 8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4분기 46억 영업손실).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한 전년 대비 33% 성장한 1,44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2011년 4분기 1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으나, 2012년에는 신규점포 오픈 (12월 천안 아산점)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전망: 온라인몰 강화, 드럭스토어 확장, 제품 구색 개선

이마트의 20122013년 이마트 성장의 키워드는 1) 온라인몰 강화, 2) 드럭스토어 확장, 3) 제품구색 개선을 들 수 있다. 1) 온라인몰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2) 이마트는 “분스”라는 드럭스토어를 3개 운영하고 있는데, 드럭스토어 산업은 향후 3년간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저가격 고품질의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이마트 또한 자사 상표 제품 위주로 생활용품, 의류 등에서 제품구색을 개선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1	7,974	491	6.2	306	10,972	750	642	5.6	25.4	1.5	14.4
12/12F	11,984	767	6.4	527	18,889	1,123	1,426	9.2	12.6	1.1	5.9
12/13F	12,102	798	6.6	544	19,516	1,147	1,350	8.7	12.2	1.0	5.8
12/14F	12,506	838	6.7	568	20,387	1,193	1,499	8.4	11.7	0.9	5.5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 자료: 이마트,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이익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중립(±1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의견 중립 유지. 신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 걸릴 듯

이마트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이마트는 할인점 산업의 성장 정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향후 성장률이 계속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월말부터 2회 휴무제도가 확정되어, 기존의 할인점 포맷의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릴 듯 하여, 주가는 상승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4분기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4Q11	3Q12	4Q12F		증감율(%)	
			KDB대우 예상치	컨센서스	QoQ	YoY
총매출액	3,032.6	3,131.3	2,943.4	3,379.2	-6.0	-2.9
순매출액	2,869.4	3,055.9	2,734.8	2,988.6	-10.5	-4.7
영업이익	146.3	229.0	157.3	156.5	-31.3	7.6
세전이익	121.4	219.1	141.4	127.8	-35.5	16.5
순이익	75.2	177.5	88.1	98.4	0.0	135.9
영업이익률(%)	4.8	7.3	5.3	4.6	-2.0%p	0.5%p
세전이익률(%)	4.0	7.0	4.8	3.8	-2.2%p	0.8%p
순이익률(%)	2.5	5.7	3.0	2.9	0.4%p	3.5%p

주: 이익률은 총매출액 대비 기준

자료: 이마트,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수익예상 변경

(단위: 십억원)

	변경전			변경후			변경률		
	2012F	2013F	2014F	2012F	2013F	2014F	2012F	2013F	2014F
총매출액	12,472.0	12,818.6	13,199.7	12,525.2	12,579.6	12,951.6	0.4	-1.9	-1.9
순매출액	11,937.6	12,313.4	12,726.5	11,983.9	12,101.7	12,506.2	0.4	-1.7	-1.7
영업이익	763.4	812.7	853.5	766.5	798.1	838.1	0.4	-1.8	-1.8
세전이익	720.1	761.8	796.0	723.2	747.2	780.6	0.4	-1.9	-1.9
순이익	524.3	554.6	579.5	526.5	544.0	568.3	0.4	-1.9	-1.9
영업이익률	6.1	6.3	6.5	6.1	6.3	6.5	-0.0	0.1	0.1
세전이익률	5.8	5.9	6.0	5.8	5.9	6.0	0.0	-0.1	-0.1
순이익률	4.2	4.3	4.4	4.2	4.3	4.4	0.0	-0.1	-0.1

주: 이익률은 총매출액 대비 기준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표 3. 월별 온라인몰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십억원, %)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11	2012F	2013F
총매출액	1265.3	976.0	1022.1	961.9	1035.7	979.0	1093.1	1087.2	1206.8	991.0	973.1	8353.3	12525.2	12579.6
온라인몰 매출액	33.2	31.9	36.3	34.5	38.1	38.6	39.6	39.6	42.3	38.1	41.9	204.0	458.1	687.2
% 비중	2.6	3.3	3.6	3.6	3.7	3.9	3.6	3.6	3.5	3.8	4.3	2.4	3.7	5.5
영업이익	104.1	34.4	66.4	52.2	71.3	70.6	81.4	69.6	77.9	54.6	48.4	490.5	766.5	798.1
온라인몰 영업이익(손실)	-1.5	-4.2	-1.7	-2.3	-3.1	-2.7	-2.6	-2.3	-2.5	-3.1	-2.8	-16.2	-31.8	-8.4
% 매출액 비중	0.1	0.4	0.2	0.2	0.3	0.3	0.2	0.2	0.2	0.3	0.3	0.2	0.3	0.1

자료: 이마트,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351.8 / 5일 -1865.8)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904.0 / 5일 -3197.4)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운수장비	437.9	-32.4	전기전자	-1,041.6	-1,233.1	유통업	200.5	627.2	전기전자	-543.9	-1,038.7
금융업	411.0	11.5	화학	-249.6	-681.9	철강금속	152.9	218.7	운수장비	-218.5	-2,244.0
건설업	235.1	-746.6	유통업	-229.2	-834.2	보험업	83.0	-508.2	통신업	-140.9	-589.4
통신업	224.4	1,116.3	음식료	-98.2	83.3	금융업	41.6	228.6	운수창고	-98.5	-67.9
보험업	198.3	606.2	운수창고	-88.8	215.3	의약품	27.2	-157.9	전기가스	-80.5	698.7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대림산업	298.8	-60.9	삼성전자	-696.6	-1,264.7	SK하이닉스	408.4	137.2	삼성전자	-537.1	651.4
현대차	213.9	452.7	SK하이닉스	-333.0	235.5	기아차	191.1	-291.4	LG디스플레이	-267.3	-1,053.2
삼성생명	213.9	341.4	KODEX레버리지	-257.3	-758.6	고려아연	151.7	199.0	현대차	-207.0	-154.7
SK텔레콤	200.9	535.3	대한항공	-118.0	-49.6	롯데케미칼	135.1	13.6	LG전자	-187.6	-509.0
LG디스플레이	188.9	512.2	한진중공업	-101.3	-7.9	삼성전자우	90.6	-147.5	SK텔레콤	-180.0	-323.5
우리금융	181.7	4.0	GS	-79.6	-189.7	롯데쇼핑	90.0	213.5	현대모비스	-151.0	-1,311.7
현대모비스	151.6	337.1	롯데쇼핑	-76.3	-197.3	현대건설	71.6	399.0	LG화학	-133.5	-80.3
한국전력	138.7	280.9	NHN	-70.9	-351.1	한국타이어	67.6	-94.2	대림산업	-87.6	33.1
KODEX 인버스	114.3	312.5	롯데케미칼	-64.9	145.1	현대백화점	65.7	263.4	우리금융	-81.6	44.4
대우조선해양	113.7	374.2	CJ	-64.5	-55.3	NHN	64.8	29.9	한국전력	-76.8	770.1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93.1 / 5일 295.6)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208.3 / 5일 -60.5)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통신방송	59.0	88.3	IT부품	-97.5	-374.6	IT부품	72.6	48.1	디지털컨텐츠	-19.4	-88.4
방송서비스	55.5	30.5	반도체	-58.6	305.4	반도체	45.8	-109.9	소프트웨어	-14.8	-24.9
의료_정밀기기	36.0	-38.4	화학	-27.8	8.8	제약	32.2	-53.1	컴퓨터서비스	-2.4	0.8
금속	29.1	82.9	기타	-26.1	-96.9	통신방송	27.4	146.5	오락_문화	-1.8	-21.9
제약	27.5	128.8	기계_장비	-25.0	48.0	방송서비스	27.1	141.2	음식료_담배	-1.8	3.3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CJ E&M	42.9	50.3	파트론	-53.9	-2.5	파트론	55.3	79.0	네오위즈게임즈	-34.4	-58.7
차바이오앤	25.7	1.0	인터파크	-26.8	-34.0	인터플렉스	37.3	33.3	씨젠	-14.6	-0.7
성광벤드	24.8	83.2	서울반도체	-26.0	193.6	CJ E&M	30.1	26.5	안랩	-10.2	-2.8
오스팀임플란트	24.3	23.6	셀트리온	-20.4	-19.3	코미팜	24.2	-30.0	GS홈쇼핑	-9.3	23.1
이녹스	20.8	94.6	디엔에프	-18.8	-5.1	컴투스	16.0	-35.7	태광	-8.5	5.7
휴맥스	16.8	4.7	인터플렉스	-18.0	-108.8	덕산하이메탈	13.6	-26.3	에스맥	-7.5	-18.0
메디톡스	15.4	83.2	포스코엠텍	-15.8	-46.9	셀트리온	11.5	25.0	코나아이	-7.2	-4.1
태광	14.1	6.8	웰크론한텍	-13.5	-29.7	홈캐스트	11.1	11.3	유진테크	-6.7	27.8
매일유업	10.8	-9.4	컴투스	-13.4	23.1	다음	10.9	154.7	게임빌	-6.6	1.9
휴비츠	10.6	21.3	파라다이스	-12.7	174.9	서울반도체	9.2	-51.0	파라다이스	-6.2	20.5

* 본 자료 중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인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ODEX 200	48,861.6	대한항공	-8,257.5	삼성생명	14,522.9	삼성전자	-40,091.4
현대차	9,972.8	삼성전자	-7,529.6	대림산업	14,164.7	SK하이닉스	-17,259.5
삼성중공업	7,931.1	SK하이닉스	-7,490.0	우리금융	10,526.8	GS	-6,863.1
대우조선해양	7,782.4	현대중공업	-6,798.7	SK	10,037.7	한진중공업	-5,157.9
LG디스플레이	7,000.2	삼성물산	-4,203.0	SK텔레콤	9,604.9	롯데쇼핑	-4,832.5
대림산업	6,291.0	CJ제일제당	-4,019.7	POSCO	9,488.6	현대제철	-4,675.4
SK	5,481.7	LG화학	-3,956.6	한국전력	7,965.5	대한항공	-3,699.4
우리금융	4,759.5	삼성전자우	-3,057.0	현대차	7,805.3	NHN	-3,457.5
기아차	4,614.1	GS건설	-2,859.0	현대모비스	7,135.0	LG이노텍	-3,444.9
현대모비스	4,008.4	KINDEX200	-2,787.3	KT	5,630.9	LG전자	-3,146.4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생명	1,038.5	SK	-1,571.6	KINDEX200	9,896.7	삼성전자	-4,922.1
메리츠화재	859.4	CJ헬로비전	-1,459.8	LG디스플레이	5,487.6	KT	-3,937.6
SK텔레콤	853.6	현대산업	-856.1	대림산업	5,343.8	현대백화점	-3,842.7
현대중공업	814.4	오리온	-828.4	우리금융	5,150.9	롯데케미칼	-3,111.1
두산	700.7	제일모직	-706.4	한국전력	4,651.5	NHN	-2,492.5
POSCO	626.7	하나금융지주	-623.5	신한지주	3,852.5	한진중공업	-2,489.2
삼성증권	588.7	현대건설	-547.4	삼성물산	3,283.5	LG전자	-2,134.1
TIGER 200	559.7	유한양행	-536.5	SK이노베이션	3,043.6	현대위아	-2,005.4
한국전력	557.1	SK하이닉스	-525.6	SK텔레콤	2,988.5	POSCO	-1,855.4
LG디스플레이	545.6	한솔제지	-516.0	삼성생명	2,838.2	LG패션	-1,751.0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삼성생명	5,526.4	21,393.8	삼성전자	53,708.6	69,658.8
KODEX 인버스	1,014.9	11,431.6	대한항공	859.6	11,797.7
기아차	19,113.8	7,303.6	LG화학	13,351.0	5,714.8
삼성중공업	1,189.4	5,401.6	LG이노텍	3,351.4	5,279.4
고려아연	15,171.0	3,216.3	현대중공업	4,121.8	5,224.7
SK C&C	192.4	2,643.3	LG전자	18,755.4	4,924.2
OCI	3,972.6	2,641.3	현대제철	1,708.1	4,183.2
한솔제지	702.1	1,471.7	KT&G	2,497.1	2,855.1
에스엘	186.8	1,422.2	대우인터내셔널	6,394.8	634.8
만도	2,571.7	1,278.8	오리온	6,993.3	579.5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성광벤드	1,537.2	심텍	-993.8	휴맥스	1,169.9	서울반도체	-3,152.2
오스템임플란트	1,341.0	이엘케이	-921.6	매일유업	973.0	CJ오쇼핑	-1,579.1
서울반도체	1,289.6	컴투스	-774.3	태광	832.5	인터파크	-1,164.0
KMH	1,135.4	제닉	-761.4	모두투어	604.9	씨젠	-1,108.1
CJ오쇼핑	1,031.4	디엔에프	-758.7	이녹스	565.6	유아이디	-761.7
CJ E&M	1,002.9	파라다이스	-694.0	차바이오엔	515.8	에스에프에이	-688.2
휴비츠	822.4	인터파크	-615.8	코오롱생명과학	473.0	다음	-598.2
GS홈쇼핑	665.5	이라이콤	-542.1	오스템임플란트	472.2	셀트리온	-584.8
이녹스	617.7	골프존	-497.1	코나아이	446.7	파트론	-568.8
태광	608.8	에스텍파마	-452.9	젠타스	399.3	와이솔	-467.5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나노신소재	321.7	포스코엠텍	-365.1	차바이오엔	1,222.5	파트론	-1,316.9
CJ E&M	280.1	실리콘웍스	-273.9	메디톡스	753.0	인터플렉스	-673.5
휴맥스	241.5	웰크론한텍	-204.0	SBS콘텐츠헤브	608.9	비에이치	-609.5
제이콘텐트리	203.7	게임빌	-188.0	에스에프에이	530.5	컴투스	-530.3
서부T&D	203.6	파트론	-155.6	나노신소재	488.7	포스코엠텍	-487.0
메디톡스	111.9	유진테크	-144.5	CJ E&M	475.8	휴비츠	-453.9
인터파크	99.3	아나패스	-110.3	테라세미콘	455.5	파라다이스	-450.5
차바이오엔	98.2	CJ프레시웨이	-94.5	오스템임플란트	385.3	모두투어	-385.5
서울반도체	82.4	한국정보공학	-88.5	게임빌	306.7	멜파스	-340.4
네이블	69.1	GS홈쇼핑	-74.3	포스코엠텍	288.8	씨티씨바이오	-325.0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CJ E&M	3,010.5	4,286.3	웰크론한텍	124.5	1,350.3
차바이오엔	542.9	2,571.4	파라다이스	616.2	1,274.8
성광벤드	207.9	2,483.8	멜파스	483.0	758.0
오스템임플란트	18.3	2,427.8	심텍	36.4	753.3
이녹스	264.1	2,075.2	씨젠	1,459.4	543.6
나노신소재	223.0	709.2	다날	109.6	402.6
테라세미콘	292.7	652.7	씨앤케이인터	267.9	334.5
제이콘텐트리	54.5	514.5	네오위즈게임즈	3,438.4	260.3
빅솔론	119.1	462.5	에스맥	754.6	108.9
모두투어	100.6	316.8	안랩	1,019.6	58.9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장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 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303	1306	1309	KSPH3H6S
기준 가격	261.43	263.40	264.90	266.75	1.55
시가	262.07	264.00	265.10	266.75	1.55
고가	263.34	264.85	266.30	266.75	1.60
저가	259.42	260.65	262.40	266.75	1.55
종가	260.49	261.45	262.60	266.75	1.55
전일 대비	-0.94	-1.95	-2.30	-	-
이른 가격	-	261.67	263.30	265.02	1.63
총 약 정 수 량 *	108,511	185,632	51	-	27
총 약 정 금 액 **	3,356,034	24,417,741	6,737	-	7,079
미 결 제 약 정	-	108917 (-1844)	2453 (6)	158 (0)	-
배 당 지 수 ***	2.85% (CD금리)	0.00	0.23	0.35	-
반 응 배 수		1.07	0.99	-	
장 중 평 균 배 이 시 스		1.480			
전 일 대 비		0.198			

주 :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 변동폭/일중 현물가격 변동폭, KSPH3H6S : 3월물과 6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배이스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익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 선물 투자자별 매매 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74,412	53,637	49,508	251	2,701	602	1,552	3,011
	매 도	75,630	52,920	49,388	324	1,642	782	2,061	2,933
	비 중	40.4%	28.7%	26.6%	0.2%	1.2%	0.4%	1.0%	1.6%
순 매 수 누 적	전 일	-1,218	717	120	-73	1,059	-180	-509	78
	누 적	-13,573	13,153	4,262	-381	-3,229	447	-887	206
매 매 편 향 강 도		-0.81%	0.67%	0.12%	-12.70%	24.38%	-13.01%	-14.09%	1.31%

주 :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이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 정보

	전일 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 보유	KOSEF	KODEX200	
KOSEF	-220	-0.83%	36	960	0.00%	NAV (ETF-NAV)%	26,374	26,355
KODEX200	-190	-0.72%	3,150	83,129	20.79%	T/E	-0.49%	-0.38%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설정주수	0.02%	0.00%
종가/100	262.45	262.55	260.21	261.45	260.80	환매주수	0	100
eff.delta	2.34	2.02	4.92	2.07	4.95	상장주수	0	4500
diff/basis	0.75%	0.79%	-0.11%	0.96	0.31		13150	1739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표 내재변동성	0.144	콜평균	0.134	풋평균	0.155	역사적 (5일)	13.3	역사적 (20일)	11.7
월물 행사가격		1302					1303		
		265.0	262.5	260.0	257.5	255.0	262.5	260.0	257.5
Call	가격	2.42	3.50	4.75	6.30	8.00	5.45	6.75	8.10
	전일 대비	-0.93	-1.10	-1.30	-1.45	-1.55	-0.90	-1.00	-1.80
	내재변동성	13.60	13.90	14.10	14.40	14.60	14.10	14.20	14.10
	거래량	29,233	12,531	4,472	1,343	384	143	78	6
	미결제	11,561	5,006	3,492	951	799	304	720	63
Put	가격	6.60	5.10	3.95	2.96	2.18	6.45	5.55	4.55
	전일 대비	1.20	0.95	0.85	0.70	0.53	0.70	1.00	0.90
	내재변동성	14.60	14.60	15.10	15.30	15.60	14.50	15.40	15.60
	거래량	7,884	12,762	55,467	124,358	140,013	148	339	93
	미결제	5,731	8,063	13,943	13,684	21,086	436	1,404	643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412,113	261,931	197,589	0	449	227	4,706	390
	매도	411,755	260,562	198,907	0	442	40	4,867	806
	비중	46.9%	29.8%	22.6%	0.0%	0.1%	0.0%	0.5%	0.1%
순매수 누적	전일	358	1,369	-1,318	0	7	187	-161	-416
	누적	513	20,619	-18,289	-10	-1,116	30	-1,265	-456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468,455	273,338	126,544	0	864	98	267	2,406
	매도	467,855	274,442	125,366	0	860	198	598	2,653
	비중	53.7%	31.4%	14.4%	0.0%	0.1%	0.0%	0.0%	0.3%
순매수 누적	전일	600	-1,104	1,178	0	4	-100	-331	-247
	누적	-1,292	4,966	-1,844	-5	-349	-93	-296	-1,087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익거래 잔고 (백만원)	최근월물	4,712,557	9,949,450	10,026,422	4,713,178	-	-	-	-
	기타	-	-	-	-	-	-	-	-
	합계	4,712,557	9,949,450	10,026,422	4,713,178	0	0	0	0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로그램 매매 동향 (백만원)	차익	3,494	0.77	188,742	4.44	387	0.09	17,691	0.42
	비차익	19,138	4.20	677,537	15.94	18,755	4.12	678,640	15.96
	합계	22,632	4.97	866,280	20.38	19,142	4.21	696,332	16.38
베이스스 수준		1.925	1.825	1.725	1.625	1.525	1.425	1.325	1.225
차익성 순매수		8	114	296	-8481	-1346	-398	-35566	-45951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01/16 (수)	01/15 (화)	01/14 (월)	01/11 (금)	01/10 (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977.45	1,983.74	2,007.04	1,996.67	2,006.80	
		5일	1,994.34	1,997.21	2,000.05	2,000.89	2,003.95
	이동평균	20일	1,996.74	1,998.00	1,997.59	1,995.47	1,993.50
		60일	1,945.22	1,944.91	1,944.44	1,943.34	1,942.16
	이격도	20일	99.03	99.29	100.47	100.06	100.67
		60일	101.66	102.00	103.22	102.74	103.33
	거래량		457,617	546,219	454,751	472,562	500,778
	거래대금		42,845.2	44,266.9	43,375.7	44,282.5	45,565.0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1.28	1.53	1.27	1.32	1.40	
	거래대금 회전율	0.37	0.39	0.37	0.38	0.39	
	심리지표	20	30	40	40	50	
	ADR		104.10	109.37	105.58	106.30	107.45
	이동평균	20일	102.63	101.97	101.84	101.47	100.69
	VR		61.81	79.09	91.31	91.30	94.12
코스닥시장		01/16 (수)	01/15 (화)	01/14 (월)	01/11 (금)	01/10 (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507.68	508.02	513.44	515.42	514.48	
		5일	511.81	512.66	512.86	511.91	509.80
	이동평균	20일	498.34	497.46	496.33	494.73	493.44
		60일	501.57	501.68	502.02	502.30	502.53
	이격도	20일	101.87	102.12	103.45	104.18	104.26
		60일	101.22	101.26	102.28	102.61	102.38
	거래량		483,412	496,289	443,514	441,080	432,196
	거래대금		19,808.7	18,751.2	18,327.4	20,756.3	18,262.8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2.38	2.38	2.13	2.12	2.05	
	거래대금 회전율	1.78	1.68	1.62	1.83	1.61	
	심리지표	60	70	80	90	90	
	ADR		108.72	111.29	109.86	112.02	115.99
	이동평균	20일	98.73	97.68	97.10	96.08	94.47
	VR		159.61	169.25	215.01	229.82	172.50
자금지표		01/16 (수)	01/15 (화)	01/14 (월)	01/11 (금)	01/10 (목)	
국고채 수익률(3년)		2.74	2.73	2.76	2.76	2.70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AA-		3.21	3.21	3.25	3.25	3.19	
원/달러 환율		1,058.70	1,056.50	1,056.10	1,054.70	1,060.40	
CALL금리		2.76	2.76	2.75	2.77	2.72	
주식형(국내)		-	678,659	681,435	681,787	682,816	
주식형(해외)		-	258,482	258,723	258,948	259,226	
채권형		-	473,945	474,030	474,198	473,849	
고객예탁금		-	181,773	177,578	176,859	180,117	
고객예탁금 회전율		-	34.67	34.75	36.77	35.44	
순수예탁금 증감		-	5,684	874	-2,771	3,221	
미수금		-	1,601	1,530	1,723	1,645	
신용잔고		-	40,946	40,697	40,420	40,224	

단위: P, %, 천주, 억원 / 주: 고객 예탁금 회전율 = (거래대금/고객예탁금) x 100